

“마운드냐, 내야냐”...아시아쿼터 선택 갈림길



KIA가 내년 시즌부터 새로 도입되는 4번째 외국인 선수인 아시아쿼터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사진은 이범호 KIA 감독. <KIA 타이거즈 제공>

KIA, 박찬호 이탈 변수 속 4번째 외국인 용병 활용 방안 고심

‘마운드 숨통’·‘즉시 전력감’...2026 시즌 대비 전력 재편 ‘방향타’ LG 등 7개 구단 마운드 선택...KIA, 팀 특성 고려 내야 보강 쓸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아시아쿼터 활용 방향이 내야수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박찬호의 이탈로 생긴 유격수 공백이 내년 전력 구성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구단은 아시아쿼터를 통한 내야 보강을 주요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내년 시즌 처음 시행되는 아시아쿼터 제도는 KB O리그의 선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력 보강의 폭을 넓히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일본·대만·호주 등에서 약 20만 달러 수준으로 선수를 영입할 수 있어 비용 대비 성공 사례가 나온다면 전력 상승 효과가 매우 크다. 외국인 선수 3명에 아시아쿼터 1명이 더해지면 팀당 최대 4명의 이방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리그 전체 흐름은 마운드 쪽으로 뚜렷하다. KIA·롯데·키움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반면, 나머지 7개 구단은 모두 투수를 선택했다. 적은 예산으로도 이닝 소화와 체력 안배 등 투수진 운영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고, 가성비 측면에서도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KIA는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불펜보다 내야 쪽 영입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주전 유격수 박찬호의 공백이 팀 운영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내부 젊은 내야 자원들이 여럿 있지만, 타격 생산성과 풀타임 경험 면에

서 확실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마무리 캠프에서 호주 대표팀 출신 유격수 제리드 데일(25)을 테스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직 최종 결론은 없지만, 내야 보강은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내부 판단이 깔려 있다.

유격수 영입은 수비 안정 효과가 즉각적이라는 점에서 가장 확실한 ‘즉시 전력’이다. 유격수는 교체 폭이 좁고, 포지션 특성상 경기 양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당장 투입 가능한 수비형 내야수가 한 명 더해지면 박찬호 이탈 이후 불안정했던 내야 구조는 어느 정도 정돈될 수 있다.

하지만 KIA도 한 가지 리스크는 감안하고 있다. 20만 달러 예산으로 공·수 겸비 유격수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수비 안정감은 확보할 수 있지만 타격에서의 한계 가능성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구단이 최종 결정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내야 보강은 팀 전체 운영에 여유를 준다.

출장 관리가 필요한 김선빈, 부상 복귀 과정에 있는 김도영 등 기존 내야 자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시즌 도중 발생하는 변수를 대응하는 데도 유리하다. 144경기 레이스를 치러야 하는 리그 특성상 유

격수 자리를 안정적으로 채우는 것만으로도 전력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각에서는 아시아쿼터를 마운드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올 시즌 KIA는 경기 후반 불안정한 마운드 운영으로 패배로 이어진 경기들도 적지 않았다.

불펜 재편이 내년 전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만큼 투수 보강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아시아쿼터로 투수를 영입할 경우 기존 불펜의 체력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닝 소화형 추격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실익도 있다.

여기에 아시아쿼터 자리를 내야수로 채울 경우 젊은 선수들의 육성 기회가 줄어들고, 유격수 자원이 부족한 리그 구조상 매년 외부 보강 필요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장기적인 수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야수 영입을 피하는 게 ‘미래를 위한 선택’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물론 구단 역시 이러한 장단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다만 내년 운영 기조가 확실한 ‘리빌딩’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기에, 아시아쿼터는 당장 전력 보강 효과가 큰 내야 쪽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만약 KIA가 실제로 아시아쿼터 유격수를 택한다면, 리그에서도 흔치 않은 선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제도 활용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팀 사정에 맞춘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장면이 될 것이다.

올 겨울 KIA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아시아쿼터 카드는 내년 KIA의 전력 구조와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지로 남아 있다.

/주홍철 기자

‘절대 강자’ 안세영, 시즌 최다 ‘11승’ 정조준

17일부터 왕중왕전 출격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이 연말 왕중왕전에서 역대 한 시즌 최다승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한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삼성생명)은 오는 17일부터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에 출전한다.

BWF 월드투어 파이널스는 한 해 동안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는 배드민턴계의 ‘왕중왕전’ 격이다.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 5개 종목에서 연간 월드투어 포인트 합산 상위 8명·조만 출전할 수 있다.

안세영은 이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2019년 일본 남자 선수 모모타 겐토가 세운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인 11승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남녀 타이 기록이고, 여자만 따지면 신기록이다.

안세영은 올 시즌 14개의 국제대회에 출전해 10개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난달 23일 호주 시드니에서 막을 내린 BWF 월드투어 슈퍼 500 호주오픈에서 10번째 정상에 오르며 이미 여자 단식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시즌 10승 고지를 밟았다.



‘서툼족 여제’ 안세영이 지난달 23일 열린 BWF 월드투어 슈퍼500 호주오픈에서 여자 단식 최초 시즌 10승 신기록을 세운 후 손가락을 펴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종전 최다승 기록 역시 안세영의 몫이었다. 그는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와 8개 BWF 월드투어 대회에서 우승하며 시즌 9승을 기록한 바 있다.

월드투어 파이널스에 나설 안세영의 경쟁자로는 월드투어 포인트 순위대로 왕즈이, 한웨

(이상 중국), 아마구치 아카네(일본),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인도네시아), 포른파워 초추영, 랏차놈 인타는(이상 태국), 미야자키 도모카(일본)가 있다.

안세영은 아마구치, 와르다니, 미야자키와 A조에서 경쟁한다. /연합뉴스



나성현 무등팀장 등 직원들이 무등야구장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 무등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로패 수상

광주시체육회 무등팀이 15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는 열리는 ‘2025 야구소프트볼인의 밤’ 행사에서 양혜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는다.

무등팀은 무등야구장 전반을 관리하는 광주시체육회 시설부서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한 전국대회 성공 개최에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지난 8월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제2회 대통령배 전국 청소년 야구대회에서 선수들이 폭염 속에서도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덕아웃에 쿨링그 시스템 설치하고, 지속적인 그라운드 관리로 경기력을 뒷받침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관람석 의자 설치, 내야 그라운드 인조잔디 개선, 안전펜스 및 안전그물망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시민과 선수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야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무등야구장을 비롯해 월드컵경기장, 국제양궁장 등 공공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무등팀 노고에 힘입어 중앙종목단체의 감사패를 수상하게 돼 축하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광주야구 메카도시인 만큼 많은 대회가 유치 개최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한국 월드컵 조별리그 입장권 최소 86만원

북중미월드컵 입장권 판매 시작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조별리그 세 경기를 관람하려면 최소 585달러(약 86만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FIFA는 지난 1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구매 신청을 받고 있다. FIFA는 이번 월드컵부터 입장권 ‘유동 가격제’를 도입했다.

티켓 가격은 경기별 예상 수요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관심이 집중되는 인기 경기는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게 된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PO) D조 승자와 조별리그에서 맞붙는 한

국은 멕시코전 티켓 가격이 가장 높게 책정됐고, 뒤이어 유럽 PO D조 승자전과 남아프리카공화국전 순으로 가격이 정해졌다.

좌석 등급에 따라 카테고리 1-4로 나뉘어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전의 최저가 좌석은 카테고리 3으로 265달러이며, 유럽 PO D조 승자전은 카테고리 3이 180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전은 140달러로 가격이 정해졌다.

한국 국가대표팀 공식 서포터 좌석도 카테고리 1-3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스탠더드, 밸류 등급으로 나뉘어 판매되며, 가격 역시 일반 좌석과 동일하게 책정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보려면 최소 585달러가 필요하게 됐다. /연합뉴스

신유빈·임종훈 사상 첫 왕중왕전 우승

WTT 파이널스 홍콩 혼복 정상

한국 탁구의 ‘황금 콤비’ 임종훈(한국거래소)·신유빈(대한항공) 조가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왕중왕전인 홍콩 파이널스 2025에서 한국 선수 파이널스 출전 사상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지난 13일 홍콩에서 열린 대회 혼합복식 결승에서 남녀 단식 세계랭킹 1위가 호흡을 맞춘 중국의 왕추천-쑤잉사조를 꺾고 3-0(11-9 11-8 11-6)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임종훈-신유빈 조는 WTT 시리즈 그

랜드 스매시와 챔피언스, 컨텐더 성적을 기준으로 랭킹 포인트가 높은 선수들만 초청해 우승자를 가리는 왕중왕전인 파이널스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우승 기쁨을 누렸다.

특히 임종훈-신유빈 조는 ‘천적’인 왕추천-쑤잉사조에 이번 대회 직전까지 6전 전패를 당했지만, 7번째 대결 만에 첫 승리를 따냈다.

최근 대회 중에선 작년 파리 올림픽 준결승에서 2-4로 졌고, 올해 5월 도하 세계선수권 준결승에서도 0-3으로 패배했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두 대회에서 동메달을 땀고, 왕추천-쑤잉사 조는 두 대회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우승 후 하이파이브 하는 임종훈(왼쪽)과 신유빈 <WTT 인스타그램 캡처>